

# SBS 사우회보

www.sbssau.co.kr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7년 10월 1일 제 44호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김수용 편집인 박동주 주소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E-mail sbssau@daum.net

### (가을건강 팁)

## 보약이 따로 없다

글 / 주승균 한의원박사

유독 무덥고 비도 많이 내렸던 올 여름을 마무리하고 건강한 가을을 지낼 수 있는 양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은 일교차가 심하고 공기가 건조하고 차가워집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쉬운데 무더운 여름을 보낸 폐는 기운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나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청명한 날이 많아 피부가 건조해지고 아토피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가을의 기상은 우리 몸의 장기와 연관되어 볼 때 폐의 기상에 속합니다. 폐는 호흡뿐 아니라 정신을 안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을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급격히 흥분을 가라 앉히고 평온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식욕이 왕성해지는 계절이기도한데 여름에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을 즐겨거나 냉방이

잘 된 곳에서 생활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가을이 되어도 식욕이 왕성해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을 여러 차례 섭취하여 위의 기능을 올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좋은 음식으로 추어탕이 좋는데 단백질이 많고 몸을 따뜻하게 해 줄 뿐 아니라 마늘과 고추, 산초와 같은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욕을 돋우고 몸속의 냉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보약으로는 쌍화탕이 좋는데 쌍화탕은 기와 혈을 동시에 보충해 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보약은 봄, 가을에 먹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보약은 특별히 복용하는 시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계절과 관계 없이 몸상태가 허할 때 상황에 따라 보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 | 우 | 동 | 정

**오효진(보도)** 지난 7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고구려 유적지 여행을 토대로 쓴 소설 **불나비**를 연재했다. 오사우는 건강이 호전되어 아들이 거주하는 독일에서 머물고 있다.

**이장수(제작)** 지난 9월 1일 제 54회 방송의 날 방송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한류드라마 열풍을 선도 하는 등 한국 방송 드라마 발전에 공헌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철호(편성)** 지난 9월 1일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제54회 방송의 날 방송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방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근용(제작)** 지난 9월부터 경인여자대학교 강단에 있다. 이사우는 방송영상학과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드라마제작론을 강의한다.

**차성모(제작)**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올림픽 공원내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 연주를 맡는다. 차사우는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 열리는 지방콘서트도 함께 한다.

**박동주(라디오)** 지난 9월 1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한국방송협회 방송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방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육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 <협찬금 내신 분>



박영호 (30만원) 이기석 (30만원) 이상성 (30만원) 이태규 (30만원)

### 빛바랜 사진첩 Who Is It?

빛바랜 사진첩 속에 옛된 얼굴은 누구일까? 사우들의 그 시절을 흑백사진으로 만났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을 찾으시는 분에게 소정의 현상금(?)을 드립니다.

제보처 : 사우회보 편집위원회 / 제보기간 : 2017년 11월 30일  
주인공 신상은 사우회보 45호에 공개합니다.



### 힌트 <인상적인>

- 왼쪽 주인공은 머리가 많이 빠져 탈모방지약 복용 후 30%정도 원상회복이 되었다. 유머와 재치가 넘치고 영상감독 출신답게 패션감각이 남다르다.
- 가운데 주인공은 당당한 체구에 신발사이즈는 작지만 활동영역은 마당발이다. 목소리 관리 최고의 보약이 술이라는 신봉자이다.
- 오른쪽 주인공은 넓은 스튜디오에서 일한 직업병으로 작은 아파트에는 살지 못한다. 요즘은 먹을 갈아 붓 가는대로 세상을 펼쳐는 풍류를 즐기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 목동송담화문이 사우회로 날아온 날, 사우들의 SNS가 불이 났다. 'SBS 소유와 경영 분리' '윤세영 회장 사임' 무언가 뇌리에 박혀 익숙한 날 탓인지 16년전 그날 뉴욕 테러의 여진처럼 느껴졌다. K선배는 열정적으로 뭉쳐 방송국 하나 만들어보자는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듯 만감이 교차한 표정이었다. 윤회장의 한장 남짓한 담화문에는 창사당시 역경을 이겨내며 뚝고동락했던 사우들의 노고와 마치 전정 같은 방송경영 27년, 때 고비마다 좀 더 잘하지 못해 회환이 남는 고해성사(?)도 담겨있었다. 카운터 난을 친구에게 선물로 주고 나서 해방된 느낌, 출가분한 마음이 되었다는 무소유 법정 스님의 얘기가 떠올랐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의 어원(?) (그런데 말이지)는 윤회장의 특유한 어투로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여백을 남겨 놓고있다. 아마도 그 여백에 SBS가 변화를 통해 다시 도약하는 여원이 이어지지 않을까? 창사 초기 면접을 볼때 전혀 예상치 않은 회장님의 돌발 질문에 당황했다는 P 선배의 얘기가 생각난다. "그런데 말이지, 자네는 말이야, SBS에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P 선배는 이렇게 답 했다고 한다. "SBS 발전을 위해 노사가 상생한다면 이라고..."

## SBSA&T TV를 넘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

**미술** 무대디자인, 소품, 의상, 미용, 조명, 그리고 비주얼 그래픽으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영상 미술을 제공합니다.

**영상** 드라마, 교양, 예능, 영화, 뮤직비디오, CM, CF, PR 등의 영상과 SBS 보도영상 취재, NLE 편집, Ingest 등 보도 영상에 대해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제작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 방송 전문 엔지니어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UHD 장비운용으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사업** 방송 미술, 영상, 기술 영역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시스템 구축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고객에게 최적의 미디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표전화 (02)2113-6300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 목동 방송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명로 111 (SBS 일산 방송센터)

무대디자인 / 소품 / 의상 / 미용 / 조명 / 3D 컴퓨터 그래픽 / 비주얼 디자인 / 야외촬영 / 특수촬영 / 해외 위성 송수신 / 방송비행 / 중계차 임대 / HD 방송시스템 구축 / IT 네트워크 / 행사 이벤트 사업 / 방송시설 S/사업



## SBS 변화의 시대를 연다

### 소유와 경영 완전 분리

창사 27년 이래 최대의 변화다. SBS 윤세영 회장은 지난 9월 11일 담화문을 통해 SBS 제2의 도약을 염원하며 SBS 회장과 SBS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 했다. 윤석민 SBS 의사의 의장 역시 SBS 이사 등 주요 자리에서 물러나고 SBS 대주주로 지주회사인 SBS 홀딩스 비상무이사 직위만 유지한다. SBS의 이런 조치는 대주주가 향후 SBS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명실상부하게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적인 완결을 위한 것이다. 한편 SBS 박정훈 사장은 별도의 사내계사관을 통해 대주주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경영방침을 밝혔다. 박사장은 SBS 사규와 편성 규약에 따라 보도 제작 편성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방송의 최우선 가치로 받들어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우회 바뀐 가을걷이

### 가을 야유회, 사우회장배 골프 대회 줄이어

SBS 사우회 10월은 어느 때 보다 바쁜 계절이 될 것 같다. 오는 23일 가을 야유회를 시작으로 각 동호회가 마련한 특별 행사가 연달아 열린다. 지난 5월 산정호수 봄 야유회에 이어 10월 24일 가을 야유회를 남한강변 여주 영릉과 신륵사에서 갖는다. 이보다 앞서 19일에는 골프 동호회가 주최하는 사우회장배 골프대회가 여주 아리지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부부동반 참여팀에게

특별 선물을 증정하고 성적에 따라 고급 골프용품을 시상한다. 한편 요산요수회, 음악감상회, 문화동호회 등 3개 동호회는 오는 11월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여수 순천을 돌아보는 남도여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우회 올해 마지막 행사인 송년회를 위해 송년모임 TF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우회 10월 가을걷이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

### ◆ 너 | 섬 | 나 | 섬 ◆

▲ 윤회장 SBS 소유와 경영 분리, SBS 제 2의 도약을 염원하며 출가분한 마음으로 은퇴 선언,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라며...

▲ 사우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또 하나 나이트 세기니 연륜의 향기 그윽하고 사우들에 삶의 연륜은 더 아름답네, SBS 사우회 가을의 전설이 되어라

▲ 송년회 TF팀 가동, 2017년 어느새 끝자락 보이네 사우회 내노라 하는 정예요원이 준비한 블록버스터급 송년회 기대해도 좋을 듯

▲ 동호회 연합 가을 여행 추진, 우리가 자랑 보이네 사우회 내노라 하는 정예요원이 준비한 블록버스터급 송년회 기대해도 좋을 듯

## 또 한번의 시작을 위하여

### 사우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SBS 사우회 창립11주년 기념식이 지난 9월 5일 여의도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사우회 김수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1이라는 숫자를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담자 SBS사우회 창립 11주년 또 한번 도약하는 다짐의 날이 되길 기원했다. 이어 임형두 전임 사우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우회 2기 집행부가 사회공헌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우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는 등 괄목할 성장을 거듭한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본사를 대표해 참석한 경영지원본부 최상재 부본부장은 요즘 방송계가 현안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고 미디어기업들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환경이지만 오히려 변화를 모색한다면 경영이 약이되어 SBS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근의 본사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마지막 분기 행사인 야유회를 비롯해 동호회 연합 가을나들이, 12월 송년회 일정에 관한 보고와 함께 이 행사에 사우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념식에 참석한 50여명의 사우들은 본사가 마련한 사우회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즐기며 사우회기 준비한 기념품을 받고 다시 만났다는 기쁨을 표했다.



## 가는 세월 해넘이

### 송년회 12월 4일 마포가든에서

SBS 사우회 2017 송년회가 12월 4일 월요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가든 호텔에서 열린다. 사우회는 올 송년회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TF팀을 구성해 알찬 송구영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우회는 600여 사우들이 모두 참석해 가는 해를 보내고 새해

소망을 함께 기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여흥을 돋구는 2부 행사는 사우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클래식, 신세대 음악, 트롯 등 장르별로 연예인들을 초대해 다 함께 즐기는데 무대도 꾸밀 계획이다.

### SBS 社友漫評



동호회 인공사



골프동호회 새 얼굴

사우회 골프동호회가 회장과 총무를 새로 선임하는 등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회장으로 선임된 이은범 사우와 총무를 맡게된 송호석 사우는 이날 19일 여주 아리지 CC에서

동호회 회원에 국한 하지 않고 전 사우가 참가하는 사우회장배 골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은범 회장과 송호석 총무는 골프실력이 프로급 수준으로 골프동호회 활성화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동호회 낙수〉

그날은 문화동창회(?)였습니다. 글/윤충의 사우

지난 달 가을 빛이 찾아오는 올림픽 공원 에서 우연히 동창생을 만났다. 그것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여자 동창생이었다. 문화동호회 회원들과 올림픽 공원에서 점심중인 영국명작 누드화 감상을 하러 갔다가 만난 동창생은 나를 보자마자 '야 너 정말 오랜 만이다. 야 째어보이는데 너 연애하냐' 하며 반말을 건네자 함께간 동료들이 함머니(?)의 저돌적 말투를 의아해 했다. 여자동창이라면 대학동창을 연상하겠지만 6.25가 일어난 해에 같이 입학한 67년지기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아무튼 동창을 모처럼 만났으니 호젓하게 옛 추억 떠 울리며 단골이 맛있는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동창생이 회원들의 저녁 식사를 자기 가 모시 겠다고 했다. 나는 너와 상관없는 동호회원 들인데 왜 네가 많은 사람의 저녁

녁을 사야하는지 알수 없다고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인 너를 즐겁게 함께 해주는 동호회 회원들 아니냐. 내가 밥 한끼사는 것도 기회가 자주있는 것 아니냐까 모두 함께 기쁘게 저녁이나 먹자'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그날 동창은 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의 저녁을 꾸짖하느라 너무 모두들 즐겁게 식사를 마쳤지만 나만이 무언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동창 대학동창을 연상하겠지만 6.25가 일어난 해에 같이 입학한 67년지기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아무튼 동창을 모처럼 만났으니 호젓하게 옛 추억 떠 울리며 단골이 맛있는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동창생이 회원들의 저녁 식사를 자기 가 모시 겠다고 했다. 나는 너와 상관없는 동호회원 들인데 왜 네가 많은 사람의 저녁

〈윤세영회장 담화문〉

SBS 가족 여러분, 오늘 저의 각오를 사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방송 환경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5년 사이에 많은 경쟁 채널과 인터넷, 모바일 등 뉴미디어가 아무런 규제받지 않고 탄탄대로를 달리며 미디어 시장을 장악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상파는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의 대열에서 점점 뒤쳐졌습니다. 지상파는 무료 보편서비스의 위상이 뿌리 채 흔들리며 차별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사로서 SBS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런 저의 충정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공정방송에 흠집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SBS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SBS의 제2의 도약을 염원하며,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윤석민 의장도 SBS 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또한 SBS 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 SBS 콘텐츠 허브와 SBS 플러스의 이사회와 이사회 의장직도 모두 사임하

고, 대주주로서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 홀딩스 비상무 이사 직위만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대주주가 향후 SBS 방송, 경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명실상부하게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적인 완결입니다. 이로써 SBS 대주주는 상법에 따른 이사 임면권만 행사하고 경영은 SBS 이사회에 위임하여 독립적인 책임경영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SBS 가족여러분,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맥아터 장군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난 27년은 저에게 마치 전쟁 같았습니다. 매 고비마다 좀 더 잘해야 하는데 하는 회한도 남지만, 든든한 후배들을 믿고 이 노병은 이제 출가분한 마음으로 은퇴하겠습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참으로 가슴 뭉클한 기억들이 저에게 많습니다. 창사 당시 스튜디오하나 없이 無에서 시작한 SBS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파 방송사로 우뚝 서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겨낸 수많은 역경들이 저의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보낸 지난 시간들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SBS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을 소망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 2017. 9. 11 SBS 회장 윤세영

◇ 경조사

Table with 2 columns: 축하합니다. and 애도합니다. containing names and dates of events.

◇ 회비내신분

Table with 2 columns: 연회비(7월~9월) and 종신회비, listing names and amounts.

글/이관형 (사우회 사무처장)

문학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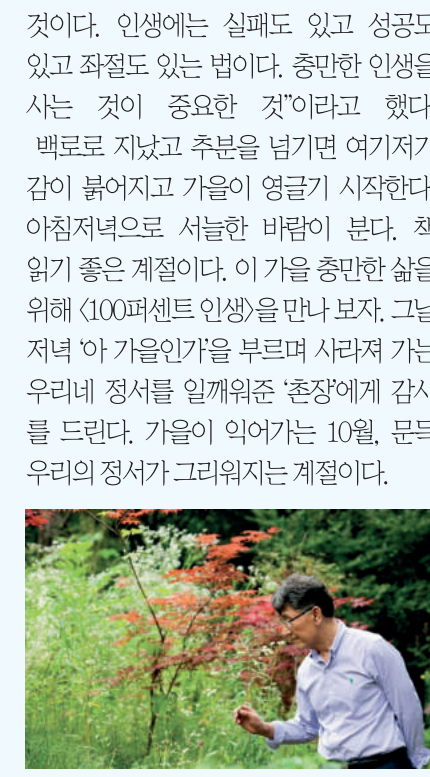
가을의 정서를 일깨워 준 힐링 '구루' 이시형 박사

글/박건삼 사우

이시형(李時炯)박사,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 과학자다. 그리고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이자 '힐리언스 선마을' 총장이다. 그의 탁월한 통찰력과 독창적인 인생론은 지난 40여년간 끊임없이 각종 TV프로그램과 지면에 소개되었으며, 국민건강, 자기계발, 자녀교육, 공부법 등 다양한 주제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폭넓은 공감을 사고 있는 '국민의사이자 힐링 '구루'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지난 8월 초순계 휴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을 찾아 이시형 박사를 만났다. '여든 소년 산이 되더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났다. 그는 '종자산처럼 청정했다. 저녁 식사 후 7시부터 8시까지 '출장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그날의 주제는 '사라져 가는 것들이었다. 30여명의 사람들이 총장 주위에 모여 방담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사라져

가는 것들을 얘기 했다. 조교가 하나하나씩 화이트보드에 적어 나갔다. '두부 장수', '아이스케키 장수', '굴뚝 청소부', '나이롱(안팔)', '다방(레지)', '엘레베이터 걸', '버스 차장' 나중에는 '방석잡까지 나왔다. 사람들은 까르르 웃기도 하며 분위기는 자못 화기애애 했다. 그러다 이시형 총장은 한국적인 정서를 꼭 집어내어 얘길 해주었다. 필자도 명색이 시인인데... 총장의 강의를 듣고 무릎을 쳤다. 참으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총장의 나이 올때 여든 넷, 태어나서 일 년에 한 권 이상씩 책을 펴냈다. 어느 작가, 어느 저술가 보다 많은 책을 썼고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최장기 베스트 셀러 작가다. 지난 8월 초순계 <100퍼센트 인생>이란 책을 펴냈다. 생애 통산 88번째 펴낸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그는 '하루를 살아도 백년을 살다시피 살라. 현대인들은 '행복 타령'에 빠져 살고 있다. 인생에 있어 행복만이 귀한 것은 아니다. 슬픔도 눈물도 귀중한

것이다. 인생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좌절도 있는 법이다.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백으로 지났고 추분을 넘기면 여기저기 감이 붙어지고 가을이 영글기 시작한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분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 이 가을 충만한 삶을 위해 <100퍼센트 인생>을 만나 보자. 그날 저녁 '가 가을인가'를 부르며 사라져 가는 우리네 정서를 일깨워준 '총장'에게 감사 를 드린다. 가을이 익어가는 10월, 문득 우리의 정서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쿠바 여행기〉

체 게바라와 헤밍웨이를 만났다 글/이봉호 사우

아버나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 상공. 비행기 창으로 비친 쿠바는 파카운 태양 아래 짙은 녹색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설레임 속에서 이산가족(?)이들의 영접을 받았다. 아 들은 멕시코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중인데 먼저 이곳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과 오랜만에 격한 상봉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이 대절된 차는 자 가운 택시였다. 50년은 넘은 소련제 라다! 라다는 그래도 고장 없이 잘도 굴러갔다. 거리 곳곳에는 "혁명이며 영원하라", "사회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피말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등 벽을 채운 구호가 큼지막하다. 물론 남미혁명의 아이콘 체 게바라의 이미지도 도처에 깔려있었다. 차는 어느새 말레콩 해변도로를 달렸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아버나항의 안쪽으로 밀고 들어온 에메랄드빛 카리브바다를 배경으로 빨강, 파랑, 노랑의 원색을 발산하며 달리는 교통편은 4,500년대의 미국 영화나 나올법한 과거원료형 차들로 아직 쿠바에서는 현재진행형이었다. 탐욕적 식민 열강자본가들과 미국을 몰아낸 카스트로의 혁명은 아이러니하게 여기서 쿠바 돈 10000정도면 마릴린 문로 처럼, 그 레고리페 처럼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원

색의 과거 속으로 달릴 수 있는 백일몽을 현실에 구현시켜놓고 있었다. 바다를 쳐다 보는 도로 옆으로 어김없이 품격 나는 유럽풍 카페들이 있고 그 안에는 항상 이 땅을 정복한 유럽인들의 후예들이 느긋하게 앉아 먹고 마신다. 여기서 나의 상식을 강타한 가장 감격적이고 쿠바적인 한 것. 그 감격적 장면을 뇌리에 담느라 나는 폰으로 찍는 것도 껌딱하고 한참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흡사 클립트의 죽음의 키스처럼 카페의 그늘에서 서로의 입술을 하염없이 탐닉하던 연인은 백발이 꼬불꼬불 성성한 흑인 할배와 할매! 카리브해의 관능은 짜글한 검은 피부에서 나이와 세월을 이기고 서럽다면 서러운 야생화가 되어 피어내고 있었다. 민박집에서 하루를 묵은뒤 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트리니다드로 향했다. 트리니다드(Trinidad) 영어로 새기면 Trinity란 뜻의 이 도시는 성티스피리투스: Sancti Spiritus Province 소속으로 성삼위일체, 성령이란 단어만 으론 무슨 거룩한 종교 도시 같지만 스페인의 잔혹한 아메리카 정복의 교두보로 서의 16세기, 소와 담배의 밀무역으로 탐욕을 채웠던 17세기, 설령으로 번성하던 18세기까지의 식민지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축적되어, 파스텔 톤의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골목풍경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 곳이다. 우리는 예약한 카사를 단박에 찾아서 현관 발을 누를 수 있었다. 열대의 과일과 주스 그리고 직접 갈아 내주는 커피향이 가득한 테라스에 처한 트리니다드 카사의 아침 식탁은 항상 투명한 하늘과 카리브의 맑은 바닷바람으로 더없는 행복감을 주었다.



우리는 이 행복감을 간직한 체 트리니다드를 떠나 100개의 햇불이란 뜻의 스페인 장군 이름을 딴 쿠바 중부의 항구도시 시엔푸에고스로 향했다. 콜람버그가 제일 먼저 발을 디딘 곳이다. 속소인 카사는 역시 바다가 보였다. 이곳을 비롯한 쿠바의 항구는 모두 천혜의 복토 땅당 지 서도 한 번 놀랐다. 출산 아나들의 순서가 다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화생방 방독면을 쓴 아가씨가 진열된 흉서 모종살 같은 주걱으로 카레, 계피, 육두구, 후추 등 온갖 향료를 봉지에 담아 저울에 달아 팔고 있었다. 거기서 산 진한 카레는 아직도 우리 집 식탁에 오른다. 아버나 아르마스 광장의 인파를 헤치고 마침내 사막은 코코넛 아이스크림, 발디딜 틈도 없던 헤밍웨이의 라 프로리다타 바의 국제적 맘 냄새와 시가 향 때마다 떠오른 보름달 밑에서 아내와 아들과 마시던 시엔 푸에고 해변 저녁의 모히토, 트리니다드의 언덕 위 세찬 바람 속에 휘날리는 테이블보를 잡고 먹던 아침까지도 자그마한 집과 보트에 삶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에메랄드 빛 투명한 바닷가에 줄지어 붙어있고 자그마한 보트 선착장이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이 거인의 양손 끝의 고지에는 해적과 외적(?)을 물리치려는 거대한 포의 요새가 바다를 향해 아직도 견제하던 포카혼타스 같은 포병장교와 원주민 처녀의 애절한 사랑이 아기가 총과 대표의 무자비함으로 점철된 식민지 약탈전의 표연의 연기 속에 두 바닷바람으로 더없는 행복감을 주었다.



▲ 헤밍웨이의 라 프로리다타 카페에서

